

코리아연구원 서평

외계인 발자국 같은 숫자로 본 통일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와 군사 분쟁의 상호인과성 분석』을 읽고

백정희
소설가

오종문 박사의 논문집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책장을 넘겨보며 외계인 발자국 같은 문자들이 낯설고 신기하게만 보였다. 더구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숫자들과 통계학으로 채워진 책장이 사이사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며 나오는 아무런 상관없는 낯선 나라의 외계 언어들로만 여겨졌다. 이런 낯설고 냉정한 수학적 계산 언어로 채워진 논문집을 어떻게 다 읽어낼까 하는 것이 문제였다. 재미없고 어려운 이 논문집을 언제 다 읽고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소감을 말해야 하는 것이 책을 선물한 저자에 대한 예의라는 숙제로 걱정이 앞섰다. 논문집을 책상 한쪽에 놓고 며칠을 보내면서 숙제를 하지 않고 있는 아이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칠을 미루던 논문집을 저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일단 펼쳐두고 읽기 시작했다. 서론부분을 읽어가며 어려서부터 숫자를 싫어하는 나는 숫자로 본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논문집을 읽기 전에 나는 통일이라면 그저 막연하게 정서적인 통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논문집을 읽어가는 동안 내가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독재체제 아래에서 꽃제비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강냉이 죽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우리의 한 핏줄이고 한 형제인 북한만을 생각했다. 이산가족은 나이 들어가고 점점 줄어드는데 왕래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과,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어서 구해주어야 한다는 측은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무지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논문집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 되었다.

논문집을 읽어가며 북한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북한이 다른 나라에 무엇을 수출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수출을 한다는 사실이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그저 불쌍한 우리 동포이려니 했던 나는 그 가난한 북한에서 수출을 한다고? 속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현대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도 가끔 북한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핵이나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겁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경제적 이익의 중요성은 국가 간에 경계를 허물게 만들고 적도 동지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역과 경제적인 문제가 서로를 위해 상호의존적이나 분쟁이나로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창구를 계속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는 숫자적인 것 북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를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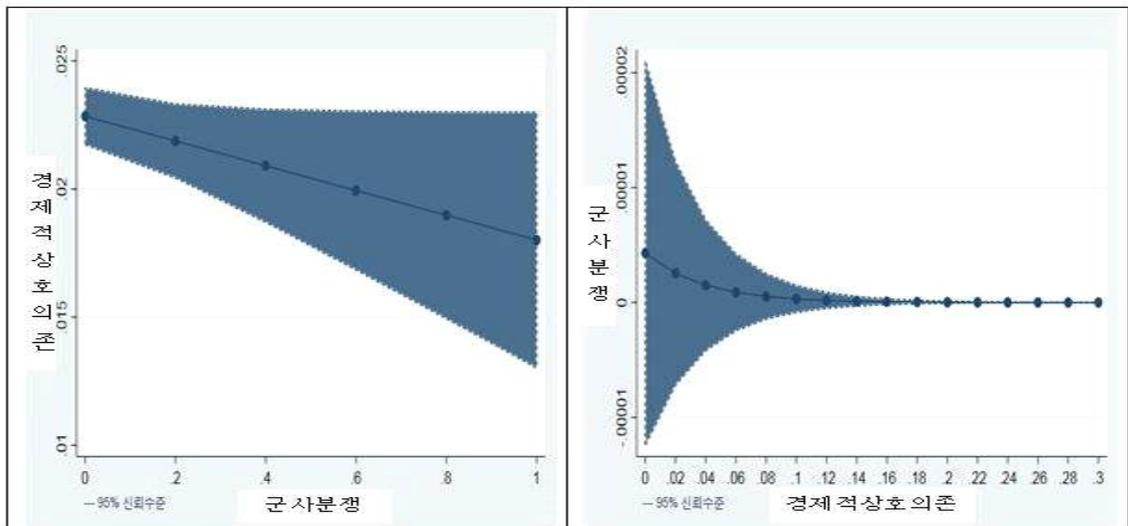
이런 면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남이나 북 서로에게 얼마나 크나큰 손실이고 또 통일의 시

간을 뒤로 후퇴하게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도록 논문집에 나타난 통계수치를 보며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저자 오종문 박사는 1990년대 이후에는 전쟁의 양상도 바뀌었다는 것과 '왈츠'가 본 전쟁의 원인들은 인간의 본성, 국내 체제, 국제적 무정부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듯 전쟁을 하는 인간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치른다는 것과 평화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 될 때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헌데 미국은 2년간 전쟁기간 동안에도 캐나다에 있는 영국 군대의 최고기 보급량의 3분의 2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손으로는 전쟁을 한손으로는 경제행위를 했다는 것과 전쟁 중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는 단체와 개인이 존재하기에 양국 간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논문집을 읽는 나에게는 놀라움이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바비에리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본다는 것도 나에게는 통일을 숫자로 생각하게 하는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북한과 동아시아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 변수의 평균값은 0.004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기록했다(1993년 중국은 0.16으로 최대값을 기록함). 북한과 동아시아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없거나 너무 낮기 때문에 군사 분쟁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본다는 사실도 숫자를 통해 경제를 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과 세계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면 군사 분쟁 발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군사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 상호의존은 감소하여 상호인과성이 나타났다.

<그림> 북한과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관계



- 주: 1. 군사분쟁이 경제적 상호의존에 미친 한계효과
2. 경제적 상호의존이 군사분쟁에 미친 한계효과

출처: 오종문(2019)

즉 북한과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숫자로 나타낼 때 북한과 국가들 간의 의존관계가 0에서 0.3으로 증가시키면 북한이 군사 분쟁을 발생시킬 확률이 99.96% 감소했다고 저자는

적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체제에 대한 보장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폐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군사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듯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으로 전 세계 국가에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즉 자국을 보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활용되는 것이므로, 북한과 강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군사 분쟁의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적고 있다.

이 논문집을 읽어가는 동안 민주주의와 독재의 값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어 읽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즉 '민주주의와 독재의 값'을 기준으로 북한과 무역하는 상대국가가 동일하게 독재국가이면 1로, 상대방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면 0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독재국가를 값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는 사실도 재미있는 새로움이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라는 다른 체제의 특성으로 상호이익의 견해 차이 등 정치적인 갈등으로 연결되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문집을 읽어가며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대외적인 관계를 더 많이 형성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 간의 거리를 중심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거리는 중국 169km이며 가장 먼 거리는 우르과이 19,540km이고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먼 거리에 위치한 국가들이 많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북한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거리 변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상호의존은 감소하고 군사 분쟁 발생은 억제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폐쇄경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50%를 넘는 개방경제라는 새로운 사실과 북한과 세계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 분쟁을 줄이고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분쟁 비용을 협력 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과 같이 미국도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여 북한의 체제 보장 및 전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활한 소통과 관계 정상화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군사적인 대립과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논문을 읽으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처음 논문집을 받아들고 외계인 발자국 같은 신기한 숫자나 문자들을 기록한 오종문 박사가 정말 외계인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헌데 읽어가는 내내 그렇듯 처음 보는 신기한 숫자 문자들도 통일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료라는 것과, 읽기를 주저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모든 자료들이 통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기초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즉 오종문 박사의 논문집에서는 숫자를 통한 시선으로도 통일을 바라본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 귀한 기회였다(2019/09/17).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발행하는 '코리아연구원의 한반도위치'에도 함께 실립니다.



※본 글은 백정희 소설가가 오종문 박사의 2019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와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 분석' 학위 논문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평소에 숫자를 싫어하던 글쓴이는 외계인 발자국 같은 숫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읽을까 고민을 했지만, 오히려 숫자를 통해서도 통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가의 눈으로 사회과학 논문을 읽고 감사평을 쓴 것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CMS자동이체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직접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처로 전화(02-733-3348)주시면 더 쉽습니다.

※온라인 송금

우리은행 1005-100-937962(예금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